

나도 이제 문해력 천재?

– 쉽게 배우는 어휘 –



"당신의 생각을 더욱 명확하게 전달하고 싶나요?"

세상과 소통하는 힘은 어휘력에서 시작됩니다. 재미있는 콘텐츠와 함께 일상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는 단어를 익혀보세요.

목차

1장 . 일상

심심한 사과
시장하다
적확하다
얼굴이 피다
이지적
피장파장
명일

2장 . 학교

모색하다
지구력
중식
며칠 / 몇일
다르다 / 틀리다
가르치다 / 가리키다

3장 . 직장

결제 / 결재
웬만하면 / 웬만하면
맞추면 / 맞히면
금세 / 금새
일일이 / 일일히
뒤치닥꺼리 / 뒤치다꺼리

4장 . 날씨 및 경제

열대야
지구온난화
자연재해
개화
사계절

을씨년스럽다
보증
이자

5장 . 기타

않 / 안
되 / 돼
데 / 대
지양 / 지향
어떡해 / 어떻게

머리말

이 전자책은 일상 생활과 학업에서 자주 접하는 헛갈리는 어휘와 표현을 재미있게 학습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단어와 표현들은 잘 알고 있는 듯하지만, 막상 쓰려면 혼동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책은 바로 이러한 헛갈리는 표현들을 네 컷 만화와 카카오톡 대화 형식등으로 쉽게 이해하고 기억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또한, 모든 연령대의 독자가 일상 속에서 실제로 접하는 다양한 상황을 기반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으며, 독자가 매일 반복적으로 사용하며 습관으로 체화할 수 있도록 돋습니다. 책의 각 장마다 일상적인 대화와 퀴즈를 통해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 단순히 어휘 지식을 익히는 것에 그치지 않고 자연스럽게 실생활에 적용하는 재미를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부터 이 전자책과 함께, 어휘력과 문해력을 자연스럽게 키워가며 자신감 있게 말하고 쓸 수 있는 능력을 길러 보세요.





일상



심심한 사과



심심한 사과는 뜻을 모르고 읽거나 듣게 된다면 지루한 사과라고 생각하게 된다. 하지만 사과도 의미가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대중 적으로 많이 쓰이는 죄송을 표현하는 뜻인 사과와 먹는 과일인 사과 중 무슨 뜻일까 고민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지루한 미안함이나 지루한 과일은 정말 이상한 표현이 아닐 수가 없다.

심심한 사과에서 '심심'은 한자어다. 심할 심(甚)에 깊을 심(深)을 더해서 매우 많은 것을 표현한 것으로, 여기서 심할 심(甚)은 심각하다의 심이고, 깊을 심(深)은 심해의 심이다.

한 줄 요약

마음(心) 깊은(深) 곳으로 부터
우러나오는 사과

알면 문해력에 쓸데있는 토막 배경 지식

한국어에는 무수히 많은 한자가 숨어있다. 이것들을 다 알고 하는 것은 무모한 짓이고, 또한 그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사람들이 쓰지 않는 단어는 무뎌져서 사라지기 마련이고, 한자어 또한 그런 단어에 속하기 때문이다. 다만, 여전히 쓰이는 한자어도 많다. '심심'부터 하여 '상담', '일상', '일정' 등이 한자어이다.

하지만 왜, 한글만을 쓰는 지금도 많은 곳에서 아직 한자를 쓰는 것일까? 이유는 단순하다. 아주 오래전부터 써왔기 때문이다. 한자는 BC 2~3세기부터 한반도의 고대 국가에서 쓰이기 시작했으며, 1948년이 돼서야 공문서에 한글만을 쓰게하는 '한글 전용법'이 제정되었다. 1970년에 한국 정부는 '한자폐지 선언'을 발표하여,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모든 교과서에 한자를 사용하지 않도록 하였고, 6년의 초등교육 과정에서 한자 과목을 없애는 등 근대에 와서 한자를 한글로 대체하려는 시도는 많았다. 그 결과로 우리가 보는 책에도 한글이 대부분의 내용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 시도가 무난히 흘러가기만한 것은 아니다.

폐지되었던 한자과목은 좀비처럼 부활해서 살아 돌아왔

고, 2000년 무렵부터는 일본과 중국과의 적극적인 교류를 위하여 지하철 안내판이나 도로 표지판 등에 한자를 병기하는 등의 일이 있었다.

하지만 한자를 쓰는 것에 단점만 있는 것은 아니다. 여전히 한자를 기반으로 한 언어를 쓰고 있는 중국이나 일본으로 갔을 때 드문드문 뜻을 알아볼 수도 있고, 이는 중국어나 일본어를 배울 때에도 적용된다.

통신과 SNS등이 많이 발달한 요즘, 한자란 어렵고 고리타분한 글자들이다. 그러나 한자를 알게 된다면 단어의 고유한 원리를 쉽게 알 수 있다. 입시 공부나 교양 쌓기에도 도움이 많이 된다. 여전히 옛 성인들이나 위인들은 책을 통해 한자로 우리에게 말을 걸고 있기 때문에, 한자는 그들과 소통하기 위한 수단이자 마음의 양식을 쌓을 수 있게 하는 언어이다.[\[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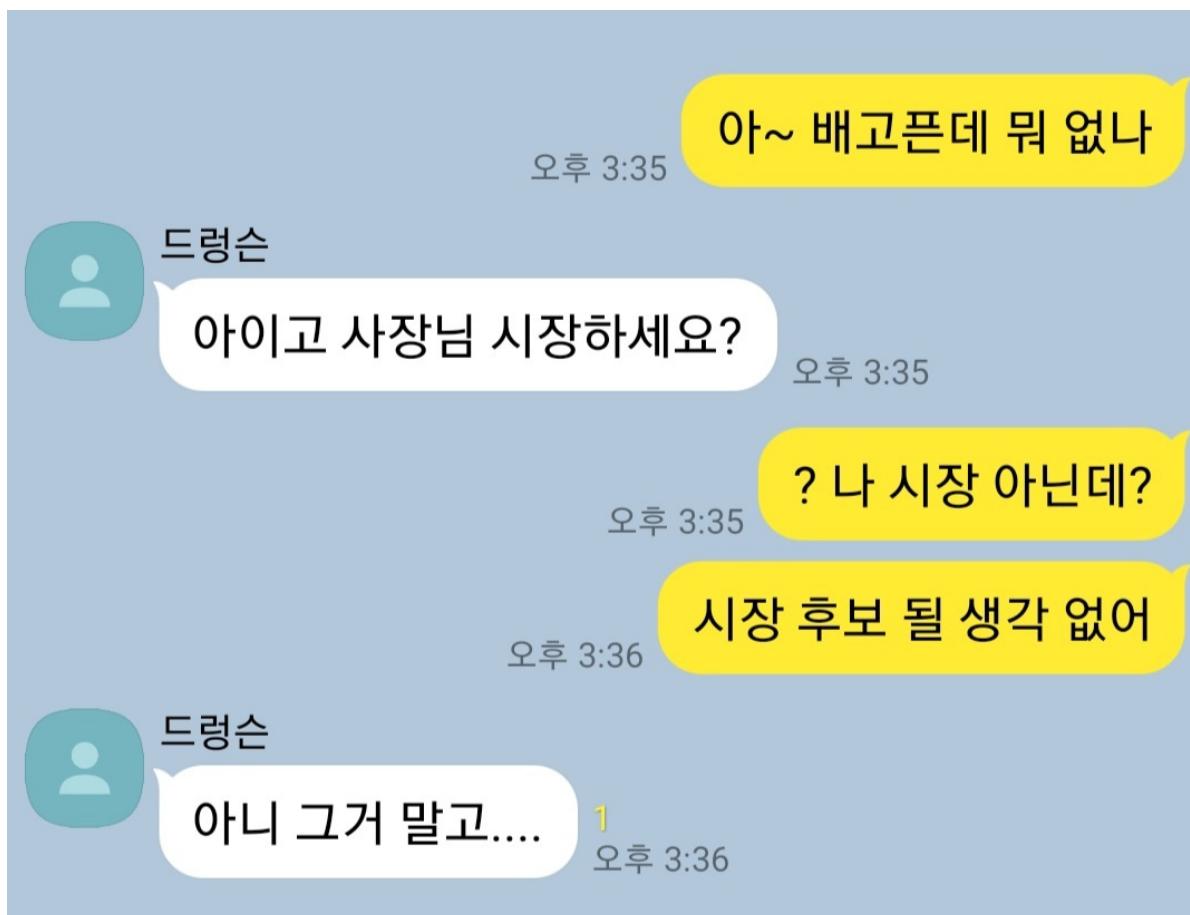
객관식 퀴즈

다음 중 뜻하는 바가 나머지와 다른 것은?

- ① 이번에 있었던 불미스러운 일에 대해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 ②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③ 그동안의 노고에 심심한 경의를 표합니다.
- ④ 사과가 별로 안 달고 맛이 심심한데?

정답: ④

시장하다



시장하다는 말을 처음 들으면 시장을 가자는 말과 혼동할 수 있지만, 이 역시 다른 뜻을 가지고 있는 말이다. 시장은 어원이 매우 찾기 어려운 단어로, 배고프다는 말과 동의어다.

사용 예시로는 “아침부터 아무것도 못 먹었더니 시장하구나. 얼른 밥을 먹자.”

“긴 산길을 걸어 내려오니 몸이 지치고 마음도 허하다. 시장한 배를 채우고자 초가집의 문을 두드렸다.” 이처럼 일상에서도 사용은 가능하지만, 현대에서는 조금 어색하게 느껴질 수 있다.

한 줄 요약

시장하다 => 배가 고파서 시장
에 가다



객관식 퀴즈

다음 중 뜻하는 바가 나머지와 다른 것은?

- ① 시장하실 텐데 이것 좀 드세요.
- ② 시장이 반찬이다.
- ③ 배고픈데 시장 가서 뭐 좀 먹을까?
- ④ 밥을 조금만 먹어서 그런지 시장하다.

정답: ③

적확하다



적확하다는 정확하고 확실하다는 의미이다. 일상적인 표현보다는 학술적 또는 문어체에서 주로 사용되며, "정확하다"보다 강도가 높다. 이 또한 한자어인데, 과녁 적(的)에 굳을 확(確)이 들어가는 단어이다. 굳을 확은 확실하다는 뜻 또한 가지고 있는데, 그러니 **적확하다**는 말은 과녁에 확실하게 맞추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일상에서는 "네가 한 설명은 정말 적확하다. 더할 나위 없이 정확한 표현이야."와 같이 정확성과 적합성을 강조할 때 사용된다.

정확하다: 사실이나 대상이 틀리지 않고 맞음을 강조.

적합하다: 조건이나 상황에 꼭 맞는다는 뜻.

적확하다: 정확성과 적합성을 모두 포함하면서, 확실성까지 강조한 단어.

한 줄 요약

적확하다 => 적에게 확실하게
맞추다

얼굴이 피다



얼굴이 피다는 관용어이며, “얼굴”과 “피다”라는 단어 자체는 쉽지만, 둘의 결합으로 인한 의미(얼굴이 밝고 건강해지다)는 얼핏 들으면 비유적인 표현, 또는 즉석에서 만들어낸 표현으로 느껴질 수 있다. 주로 건강이 회복되거나 행복한 상태를 비유적으로 표현 하며, 앞의 만화와 같이 얼굴 + 꽃이 피다로 기억해도 될 것이고, 얼굴 + 다리미 다리듯 구김을 펴다로 기억해도 될 것이다.

비슷한 표현은?

광이 나다: 얼굴에 건강하고 밝은 빛이 나는 모습.

화색이 돌다: 얼굴빛이 밝고 생기가 돌며 건강해 보이는 모습.

꽃이 피다: 단순히 얼굴뿐 아니라, 주변 분위기나 상황이 밝아짐을 표현.

한 줄 요약

얼굴이 피다 = 상태가 좋아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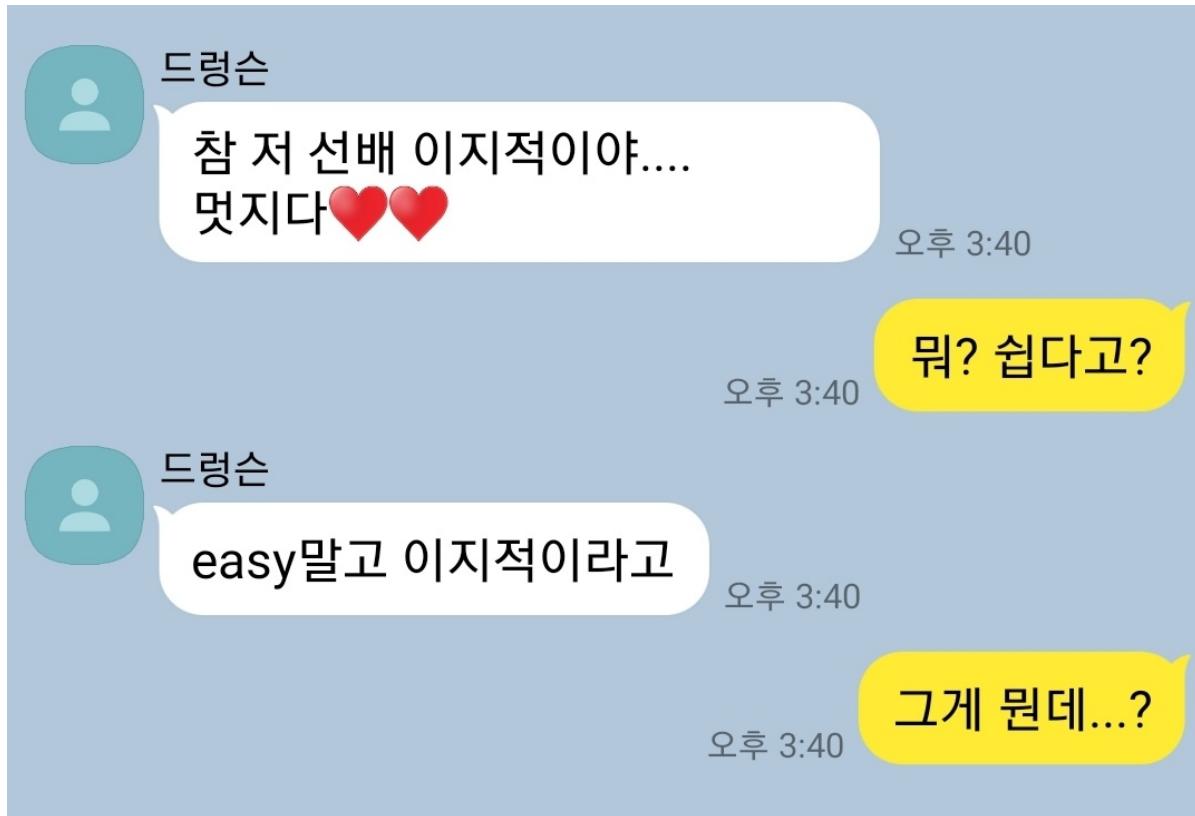
객관식 퀴즈

다음 중 뜻하는 바가 나머지와 다른 것은?

- ① 얼굴이 꿰네? 요즘 연애해?
- ② 너 얼굴에 피 나! 어디 다쳤어?
- ③ 아이가 잘 먹어서 그런지 얼굴이 꿰네.
- ④ 확실이 운동하고 나서 얼굴이 좀 핀 것
같지 않아?

정답: ②

이지적



이지적은 "이성적이고 지적인"이라는 뜻으로, 理(이치)와 知(지식)에서 파생되었다. 일상에서는 사용 빈도가 낮고 신문에서나 볼 법한 단어라 어려울 수 있을 것이다.

이성의 '이'와 지식의 '지'를 결합하여 만들어진 단어로 기억하면 단어를 외우기 쉬워질 것이다.

예시로는 "이지적으로 보이지만, 때로는 감정적 공감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기도 한다."가 있다.

비슷한 단어는?

지성적: 지식과 학문적 사고가 풍부한 사람을 묘사.

합리적: 이성과 논리에 따라 판단하는 사람이나 태도.

세련된: 지적이고 고상한 매력을 강조하는 표현.

한 줄 요약

이지적 = 이성적이고 지적인



초성 퀴즈

다음을 뜻하는 단어는?

- ① 이지로써 행동하거나 판단하는. 또는 그런 것.
- ② 용모나 언행에서 이지가 풍기는. 또는 그런 것.

• * *

정답: 이지적

피장파장



"**피장파장**"은 서로 잘못이나 처지가 비슷하여 따질 수 없다는 뜻이다. 직역하면 "저쪽도 같고 이쪽도 같다"는 의미로, 어원은 맹자 孟子가 말한 '피장부아장부 彼丈夫我丈夫'의 줄임말이다. 속담처럼 사용되며, 일상적으로 쓰이지만 한자를 알지 못하면 구체적인 뜻을 이해하기 어려울 것이다. '피장부아장부 彼丈夫我丈夫'는 풀어 말하면 '네가 장부이면 나도 장부이고, 내가 소인배면 너도 소인배'라는 뜻이므로, 도토리 키재기와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될 것이다.

비슷한 단어는?

도긴개긴: 피장파장과 유사하게, 서로 차이가 거의 없음을 나타냄.

거기서 거기: 별 차이가 없고 대등함을 강조.

막상막하: 실력이 엇비슷하여 우열을 가리기 어려움.

한 줄 요약

피장파장 = 도토리 키재기 피자
버전



초성 퀴즈

다음을 뜻하는 단어는?

서로 낫고 못함이 없음. 상대편과 같은 행동을
하여 서로 같은 처지나 경우가 됨을 이른다.

☞☞☞

정답: 피장파장

명일

<공지>
명일 15시에 학교 축제가
있습니다.
문정과 학생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오후 3:42



드렁슨

죄송하지만 명일이 뭐예요...?

오후 3:42

+ 어이구 이 화상아



"**명일**"은 밝을 명(明)에 날 일(日)을 합한 한자어로 "내일"을 뜻 한다. 현대 한국어에서는 일상적으로 쓰이지 않고, 문어체나 공문서에서 주로 사용된다. '명일'이라는 표현 자체는 쉬운 한자이지만, 현대적 어감이 부족해 낯설 수 있지만 한자를 알게된다면 쉬운 단어가 될 것이다.

비슷한 단어는?

내일: '명일'의 순우리말 표현으로, 일상에서 가장 흔히 사용됨.

차일(次日): 바로 다음 날. 주로 고급 문어체에서 사용됨.

익일(翌日): 그다음 날을 격식 있게 표현한 말.

한 줄 요약

명일 = 밝아오는 날 -> 내일



ox 퀴즈

- 내일은 날씨가 흐릴 예정입니다.
= 명일은 날씨가 흐릴 예정입니다. ()
- 명일 오후 1시까지라고 했으니까
내일 1시까지 가면 되겠네. ()
- 그럼 명일이 '내일'이랑 똑같은 말이야?
()

정답: O, O, O

학교



모색하다

오늘은 ~에 대해
모색해봅시다.



‘모색하다’는 본뜰 모摸, 찾을 색索 자를 쓰는 한자이다. ‘일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나 방향을 깊고 넓게 생각해서 찾다’라는 의미로 ‘찾다’, ‘궁리하다’, ‘도모하다’, ‘강구하다’, 영어로는 ‘seek’, ‘find’로 쓸 수도 있다.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모색해 보자고 한다면 뭔가를 알아보자는 뜻으로 이해하면 된다. 미술 시간이 아닌 이상 뜯금없이 뭔가를 색칠해 보라고 하지는 않겠지. 방법을 모색해 보다, 나의 미래를 **모색하다**, 새로운 길을 **모색하다**, 모르는 단어를 **모색하다**, 문해력을 높이는 방법을 **모색하다**. 형태는 다르지만 비슷한 뜻을 가진 단어들이 참 많다. 이들을 모색해 보면서 어휘력과 문해력을 길러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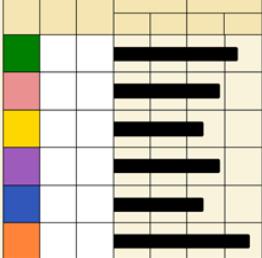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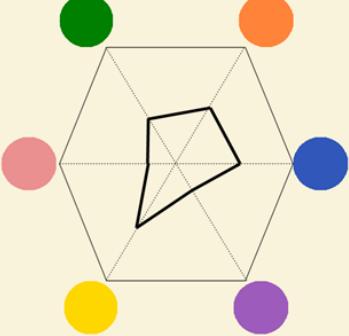
한 줄 요약

모색하다 = 찾다, 궁리하다, 도모
하다

지구력

진로 선택을 위한
진로흥미검사

성명 000
소속
학년/반/번호
검사 일시 0000.00.00



종합결과

... 자체력과 지구력이 높아 자신을 잘 조절할 수 있습니다.

- 잘 맞는 학과: OO학과, △△△△학과, □□□학
- 잘 맞는 계열: ◇◇계열, ●●계열
- 잘 맞는 직업: ☆☆☆, ♥♥♥♥, ▲▲▲



지구의 힘에는 지구가 물체를 끌어당기는 중력, 물체가 서로 끌어당기는 만유인력, 강력, 약력, 전자기력, 마찰력, 탄성력 등 수 많은 힘이 있다. 하지만 '지구력'이란 힘은 없다. 지구력은 지구의 힘이 아니라 가질 **지持**, 오랠 **구久**, 힘 **력力** 자를 써 '오랫동안 버티며 견디는 힘'을 말한다. 아마 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많이 들어본 단어일 것이다.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하느냐, 버틸 수 있느냐는 운동의 성과를 좌지우지하니까. 그렇다고 지구력이 단순히 운동의 산물이라는 말은 아니고 일상생활에서도 자주 쓰인다. 지구력이 향상되면 집중력과 인내심도 함께 증가하기 때문에 긴 시간 집중이 필요한 작업에 반드시 필요하고 지구력이 중요하다는 말이 나오는 거다. 현대를 살아가는 바쁜 직장인들이 공감한 사이다 명언이 참 많다. 원수는 직장에서 만난다, 돈 벌기 참 힘들다, 아유... 하기싫어..., 버티는 게 이기는 거다, 버티자 나에겐 금요일이 있어, 인생은 버티는 거야. 맞다. 인생은 버티는 거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지구의 힘 말고 지구력을 기르자.

한 줄 요약

지구력 = 지속력



초성 퀴즈

다음을 뜻하는 단어는?

오랫동안 버티며 견디는 힘.

ㅈ ㄱ ㄹ

정답: 지구력

중식

가정통신문

현장체험학습 안내

☆ 현장체험학습일: 2024.00.00 () 00:00~00:00

☆ 장소: OOO

☆ 학교 등교 시간: 00.00 까지

활동 시간	내용
00:00~00:00	점검 및 출발
00:00~00:00	이동
00:00~00:00	체험
00:00~00:00	<u>중식 제공</u>
00:00~00:00	...
00:00~00:00	학교 도착

☆ 준비물: 멀미약, 비닐봉지

☆ 주의할 점

- 질서있게 행동합니다.
- 교통 안전에 유의합니다.
- 서로 배려하며 존중합니다.

2024.00.00

△△△ 학교장

중식은 '중국 음식'과 '점심에 끼니로 먹는 밥'이라는 2가지 의미가 있다. 어느 초등학교에서 현장체험학습에 대한 가정통신문에 '중식 제공'이라는 표현을 썼더니 한식은 왜 안되냐는 민원이 나타났고 학부모 악성 민원의 한 사례로 등극했다. 물론 헷갈릴 수 있다. 게다가 한자도 가운데 중中, 먹을 식食 자로 똑같이 쓰니까. 하지만 우리 이성적으로 생각해 보자. 학교에서는 학생들의 건강을 생각해 영양 잡힌 식단을 짜서 급식을 제공하는 마당에 하루아침에 갑자기 중국 음식만 제공해 준다고 하지는 않겠지. '점심'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왜 헷갈리게 굳이 한자어를 쓰냐고 화내지 말고 조금만 더 신중하게 생각해 보고 배움에 의의를 두자.

조식(朝食)	중식(中食)	석식(夕食)
아침 식사	점식 식사	저녁 식사

한식(韓食)	중식(中食)	양식(洋食)	일식(日食)
한국 음식	중국 음식	서양 음식	일본 음식

며칠 / 몇일



결론부터 말하자면 '며칠'이 맞는 표현이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몇일' 또는 '몇 일'로 잘못 사용하곤 한다. 년, 월, 시, 분, 초 앞에는 다 '몇'을 사용하기 때문에 똑같은 것으로 인식하기 때문이다. 왜 그럴까? 그렇다면 **몇 년, 몇 월, 몇 시, 몇 분, 몇 초**는 다 되면서 왜 **며칠만 며칠**로 써야 할까?

개정 전에는 '며칠'과 '몇일' 두 표현 모두 허용했지만 개정 이후에는 [며칠]로 발음된다는 점, 어원이 '몇+일'로 분석될 만한 근거가 부족하고 분명하지 않다는 점 때문에 현재는 '며칠'만 표준어로 삼은 것이다.^[1] 나머지는 '몇'과의 결합된 형태(몇+○)로 보지만 '며칠'은 몇과 일이 합쳐진 말이 아니다.

즉, '몇일'이라는 단어는 쓰지 않는다는 말씀. 앞으로는 헷갈리지 말고 무조건 며칠이라고 외우자.

한 줄 요약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 몇 분,
몇 초



OX 퀴즈

- 오늘이 몇 월 몇 일이야? ()
- 과제 제출 기한이 며칠 남았지? ()
- 중간고사까지 몇일 남았더라? ()

정답: x(-> 며칠), o, x(-> 며칠)

다르다 / 틀리다



방금 이상한 점을 못 느꼈다면 당신은 지금껏 단어를 잘못 사용하고 있었던 거다. 이런 상황에서는 '다른데?'라고 하는 게 맞다. 두 단어는 엄연히 다르지만 많은 사람들이 틀리게 사용하곤 한다. 별게 아닌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분명히 구별할 줄 알아야 한다. "틀린 게 아니라 다를 뿐", "다른 게 틀린 것은 아니다"라는 말을 들어본 적 있을 것이다. 삶에 정답이 없고 각자 다 나름대로 존재의 이유와 가치가 있다. 특히 '차별'과 관련하여 많이 쓰이는 단어이기도하면서 일상생활에서도 자주 혼동되어 쓰인다.

'**다르다**'는 비교가 되는 두 대상이 서로 같지 아니하다는 뜻이고, '**틀리다**'는 셈이나 사실 따위가 그르게 되거나 어긋나다는 뜻이다. 형제인데도 얼굴과 성격이 다를 때, 나이가 들어 몸이 예전과 다를 때, 소문이 사실과 다를 때, 오늘 유달리 친구의 스타일이 다를 때는 '**다르다**'를, 문제의 답이 틀릴 때, 계산이 틀릴 때, 드라마 주인공이 대사를 틀릴 때는 '**틀리다**'를 쓰면 된다.

한 줄 요약

다르다=different

틀리다=wrong



OX 퀴즈

- 둘이 형제면서 어쩜 그렇게 틀리니? ()
- 죄송한데, 비밀번호가 틀린 것 같은데
 다시 눌러주시겠어요? ()
- 나 발표 때 대사 엄청 틀린 것 같은데
 어떡하지? ()

정답: X(-> 다르니?), O, O

가르치다 / 가르키다

받는 사람: 000 교수님

제목: 교수님^^

안녕하세요, 교수님!

저는 △△△△△를 수강하고 있는

□□학과 00000000 000입니다.

항상 열정적으로 △△△△△를 가리켜주셔서
감사한 마음으로 수강하고 있습니다.



'가르치다'와 '가리키다'가 구분이 안된다는 사람이 많다. 두 단어의 형태와 소리는 그렇게 다르진 않지만 사람들이 많이 헷갈리는 이유는 유사하게 틀린 단어로 많이 사용하기 때문이다. '가르쳐'와 '가리켜'를 헷갈리는 건 양반이다. 오죽하면 가르켜, 아리켜, 아르쳐로 사용하는 사람도 있을까.

'**가르치다**'는 ① 지식이나 기능, 이치 따위를 깨닫게 하거나 익히게 하다. ② 그릇된 버릇 따위를 고치어 바로잡다. ③ 교육 기관에 보내 교육을 받게 하다.라는 의미, '**가리키다**'는 ① 손가락 따위로 어떤 방향이나 대상을 집어서 보이거나 말하거나 알리다. ② 어떤 대상을 특별히 집어서 두드러지게 나타내다.라는 의미다. 쉽게 말해서, '가르치다'는 지식이나 교육에 사용하고 '가리키다'는 특정 방향이나 대상을 지목할 때, 콕! 집을 때 사용한다고 보면 된다.

한 줄 요약

가르치다: 지식이나 교육을

가리키다: 특정 방향이나 대상을



OX 퀴즈

- 선생님! 수업 내용을 좀 더 자세히 가르쳐 주세요. ()
- 시계는 정확히 1시를 가르치고 있었다. ()
- 교수님은 매일 학생들을 가리키신다. ()

정답: O, X(-> 가리키고), X(-> 가르치신다)

직장



결제 / 결재

← 김차장님 ⌂ ⌂

2024년 11월 4일 월요일 >

김차장님 오늘까지 물품구매 요구서 기안결재 부탁드립니다.

김차장님
이번에는 제대로 작성했나요?

네

김차장님
맞춤법도 틀리면서 기안결제서는 제대로 작성했다는 말인가?

네?

김차장님

결제서 내용은 수정할 게
없는데

결재서 할 때 가 아니고
'결제서' 라고 어휘를 고쳐
써야하지 않겠니?

오후 3:32

아닙니다.

결재: 안건을 검토하여 허가,
승인 하는 것
결제: 대금을 주고 받는 거래
라는 뜻입니다.

오후 3:33

따라서 둘 다 쓸 수 있는
말이지만 차장님께 결제
승인을 부탁요청하는 상황이니
이 상황에 쓰이는 말은 '결재서'
라고 쓰는게 맞습니다.

오후 3:34

김차장님

그래요 결재서에
싸인해놓을게요.

오후 3:34



연말시즌이 되면 직장에선 한 해를 정리하는 이런저런 서류를 마무리해야 한다. 또한, 거래처와의 대금을 정산하고 회계 처리도 완료해야 한다. 개인들도 정산해야 할 일이 적지 않다. 이런 경우 '결제' 또는 '결재'라는 용어를 사용하는데 어느 맞춤법을 써야 하는지 헷갈린다.

'ㅔ'와 'ㅐ' 발음이 잘 구분되지 않다 보니 '결제'와 '결재'를 구별해 쓰는 데 더욱 어려움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다. **돈이나 자금과 관련된 것을 끝맺는 것은 '결제', 서류에 도장을 찍거나 서명하는 것은 '결재'**라 생각하면 쉽다. 더욱 단순화하면 돈은 '결제', 서류는 '결재'라 기억하면 된다.

'결제'부터 보자. 결제(決濟)는 증권 또는 대금을 주고받아 매매 당사자 사이의 거래 관계를 끝맺는 일을 가리킨다. "자금을 결제했다" "어음을 결제했다" "카드 대금을 결제했다" "모바일 결제가 늘고 있다" 등처럼 쓰인다.

"결재"는 상급자가 결정을 내리기 위해 서류나 사항에 대해 승인하는 행위를 뜻한다. 예를 들어, 상사가 직원이 요청한 서류나 결정을 검토하여 허가를 내릴 때 "결재를 받다"라고 표현한다. 국립국어원에서는 결재를 "결정에 대한 승인"으로 해석한다.

"결제"는 금전이나 거래에서 대금을 지불하거나 청산하는 것을 뜻한다. 예를 들어, "카드 결제"나 "온라인 결제"와 같이 거래의 대금이 지급되는 상황에서 사용된다.

그러므로, '기안 결재/결제 부탁드립니다.'에서 '결제'를 쓰는 이유는 회사원이 상급자에게 기안서 승인을 부탁하는 행위로 결재라는 단어를 쓰는게 알맞다.

한 줄 요약

결재 = 결재할 권한이 있는 상관이 부하가 제출한 안건을 검토하여 승인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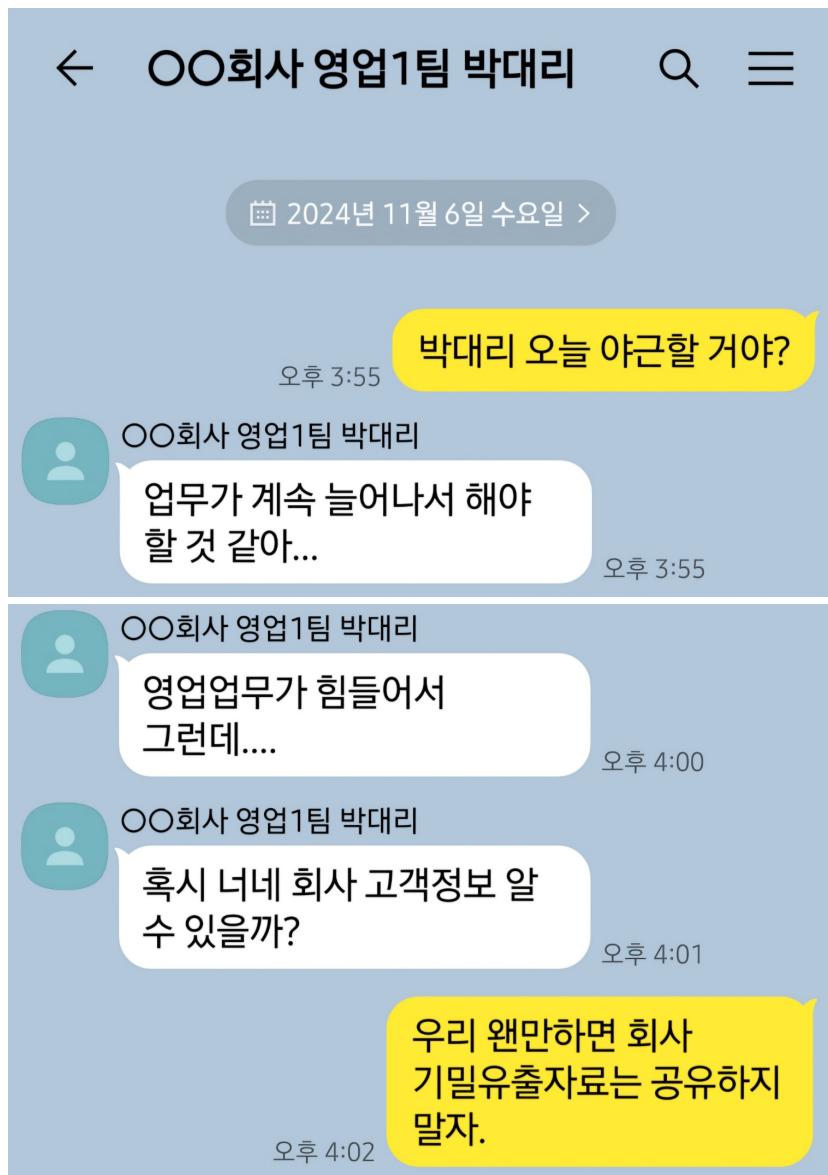


OX 퀴즈

- 현금이 없어서 카드로 결제해도 될까요?
 ()
- 팀장님, 이거 결제 좀 해주세요. ()
- 프로젝트를 진행하려면 담당자의 결재가 필요합니다. ()

정답: O, X(-> 결재), O

웬만하면 / 웬만하면





○○회사 영업1팀 박대리

그래.

그런데 웬만하면 할 때 웬이
아니라 웬 이야

오후 4:03

?

오후 4:03



○○회사 영업1팀 박대리

웬으로 쓰는게 맞아
웬만하면은 잘못된 표기로
없는 단어야

오후 4:03

그래 덕분에 맞춤법 공부하고
가네

오후 4:04



○○회사 영업1팀 박대리

요즘 읽고 있는 어휘력 향상
전자책 추천해 줄게

오후 4:04

일상에서 바른 표기보다 틀린 표기가 더 많이 사용되고 있다. 특히, '웬만하면'과 '왠만하면'은 사람들이 많이 헷갈려하는 표현 중 하나이다. 이제부터, 단어에 쓰임에 맞는 상황별 예시를 살펴보도록 하자.

"**왠**일/**웬**일이야, 말도 없이?", "**왠**/**웬** 이상한 사람이 말을 거는 거야." 이 두문장을 살펴볼 때 어떤 맞춤법을 쓰는게 더 나을까? 답은 '**웬**'이다.

앞선 문장에서 사용된 관형사 '**웬**'은 '어찌 된/어떠한'의 의미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첫 번째 예시 문장에서는 '어찌 된'의 의미로, 두 번째 예시 문장에서는 '어떠한'의 의미로 쓰인다.

국립국어원에 따르면 "**웬**"은 "어떠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 "**웬**일"이나 "**웬**만큼" 등에서 쓰인다. "**웬**만하면"은 "상황이 크게 나쁘지 않으면" 또는 "조건이 크게 벗어나지 않으면"이라는 뜻으로, '**웬**'을 활용해 '어떠한 정도나 기준'을 나타낸다.

반면 "**왠**"이라는 단어는 표준어로 인정되지 않는 잘못된 표현이다. "**웬**만하면"에서 '**웬**'은 특별히 정해진 어원은 없지만, "어느 정도 수준에 해당한다"는 의미를 나타내는 데 쓰인다.

또한, '**왠**만하면/**웬**만하면'의 경우, '정도나 형편이 표준에 가깝거나 그보다 약간 낫다.' 혹은 '허용되는 범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아니한 상태에 있다.'의 의미를 가진 '**웬**만하다'를 활용한 표현이므로 '**웬**만하면'으로 쓰는 것이 적절하다. '**왠**만하면'은 사전에 없는 단어이다. [3]

한 줄 요약

웬만하면 = 정도나 형편 표준에 가깝거나 그보다 낫다.



객관식 퀴즈

다음 중 표기가 틀린 것은?

- ① 바쁜데 웬일이야?
- ② 오늘 웬지 한가할 것 같지 않아?
- ③ 웬만하면 센스 있게 미리 준비 좀 해놓자.
- ④ 어머나! 이게 웬 떡이야?

정답: ①(-> 웬일이야?)

맞추면 / 맞히면

← 금융관리부 1팀 이주임 ⌂ ⌂

2024년 11월 7일 목요일

금융관리부 1팀 이주임
[단독] 사내체육대회
경품이벤트
<https://news-korea.kr/831331>

오후 2:19

링크 들어가보니 공지사항에
퀴즈를 맞추면이라고 되어
있던데

오전 12:21

이주임, 맞히면이 문맥 상 맞지
않니?

오전 2:21

금융관리부 1팀 이주임
아니요

맞추면이랑 맞히면 똑같은 말
아닌가요?

오후 2:22

아니야.

맞히다는 동사로 문제에 대한
답을 틀리지 않게 하다.

맞추다는 동사로 서로 떨어져
있는 부분을 제자리에 맞게
대어 붙이다. 라는 뜻이야.

오후 2:24



금융관리부 1팀 이주임

그렇군요 덕분에 좋은 정보
알아가네요

이벤트 공지사항 문구
다시 수정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2:25

그래

오후 2:25



'태아 성별 알아 맞추기/맞히기'라는 문장이 예시 주어져서 옳은 답을 찾으라고 하면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가? 골라내다의 의미로 쓰이는 단어로는 '알아맞히다'의 뜻을 가진 '맞히다'를 써야 한다.

'맞히다'와 '맞추다'는 쓰임새가 서로 다르다. '맞히다'는 "수수께끼를 맞혀 봐" "퀴즈의 답을 맞힌 사람이 누구일까?"와 같은 상황에서 사용한다. 또한, '맞히다'는 문제에 대한 답을 틀리지 않고 적중시킨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그러므로, 퀴즈를 맞추다/맞히다 할 때 '맞히다'가 적절한 표현이다.

그리고 시험을 어떻게 쳤는지 궁금해 서로 답을 비교해 보거나 문제지를 푼 다음 해답과 대조해 보는 것은 '맞추다'로 표현하는 게 맞다. "시험이 끝나고 친구들끼리 답을 맞춰 봤다" "문제를 푼 뒤 답안지와 맞춰 봐라" 등과 같이 쓰인다. 둘 이상의 일정한 대상을 나란히 놓고 비교해 살핀다는 뜻이다.

또 다른 의미로는 '맞추다'는 서로 떨어져 있는 부분을 제자리에 맞게 대어 붙이다, 정해 놓은 기준이나 규정에 맞도록 하다는 의미로도 쓰인다. '조각난 부분들을 하나하나 다시 맞춰 붙이고 있다.' '심사 기준에 잘 맞춰라'와 같은 상황에서 주로 사용한다. 또한, '맞추다'는 물체나 상황을 비교해 조화를 이루게 하거나 일치하도록 조정한다는 뜻으로, '퍼즐을 맞추다'처럼 쓰인다. 그러므로, '맞추다'와 '맞히다'는 상황에 따라 쓰이는 어휘가 다르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대상끼리 서로 견줘 보는 것은 '맞추다', 바른 답을 가려내는 것은 '(알아)맞히다'를 써야 한다. '알아맞추다'란 말은 사전에 없다. '알아맞히다'로 바꾸어야 한다. 반면 "맞히다"는 목표물에 정확히 도달하거나 정답을 알아내는 상황에 쓴다. 그러면 퀴즈를 맞추면/맞히면 경품을 드립니다. 라는 문장에서는 어떤 어휘가 더 적절하게 쓰일까? 국립국어원에 따르면 "퀴즈"의 경우에는 정답을 선택하여 맞히는 행위이므로 "퀴즈를 맞히다"라고 해야 한다.

한 줄 요약

맞히다 = 문제에 대한 답을 틀리지 않게 하다.



객관식 퀴즈

다음 중 표기가 맞는 것은?

- ① 퀴즈를 맞추면 상품을 드립니다.
- ② 샘플을 보기 좋게 한 줄로 맞춰놓으세요.
- ③ 프로젝트를 진행하려면 의견을 최대한 하나로 맞혀야 될 것 같습니다.
- ④ 요즘 독감이 유행이라던데 얘들 예방접종 맞쳤어?

정답: ②

금세 / 금새



'금새'와 '금세'는 발음이 유사하지만 의미와 사용문맥에서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이 두단어의 올바른 사용을 이해하는 것은 일상생활에서의 의사소통이 매우 중요하다. 우선 '금새'라는 표현은 '**지금 바로**' 또는 '**방금**'을 의미한다.

이 단어는 과거 시점의 어떤 행동이나 사건이 현재에 바로 영향을 미친다는 뉘앙스를 가지고 있다. 반면, '금세'는 '**짧은 시간내에**' 또는 '**즉시**'를 의미한다. 어떤 일이 이루어지거나 변화가 발생하기 까지의 시간을 명확히 하고 싶을 때 사용된다.

이러한 부분은 문법적 요소와도 연결되는데, '**금새**'는 **과거를 바탕으로 한 현재의 즉각성을 강조**하는 반면, '**금세**'는 **미래에 관한 예측이나 즉각적인 변화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또한 금새와 금세는 일상 대화에서 자주 사용되는 표현이지만, 두 단어의 사용은 맥락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즉각적인 상황을 강조할 때는 '금세'는 '동시에', '빠르게'라는 뜻을 가지며 '금새'는 '과거에 이미 일어난 일을 회상할 때 사용하는 것이 특징이며 '방금' 또는 '아까'라는 시간 개념을 가진다. 그러므로, 직장 이직한다는 소문이 금세/금새 퍼졌다. 라는 문장은 금세로 쓰이는게 알맞다.

한 줄 요약

금세 = 짧은 시간내에, 즉시



OX 퀴즈

- 회사에서 말 함부로 하면 소문 금새 퍼지는 거 몰라? ()
- 요즘 채소 금새가 너무 올랐어! ()
- 오늘 화장 너무 잘먹었는데 금세 무너졌어. ()

정답: X(-> 금세), O, O

일일이 / 일일히



'일일이'의 뜻은 부사로서, 일마다 모두라는 의미를 갖고 유의어로는 사사건건이라는 의미로도 불린다. 예를 들어 '일마다 모두 (사사건건) 너한테 다 얘기 해야 하나?-> 일일이로 바꿔어서 쓰일 수 있다. 일일이를 발음나는 그대로 읽으면 [일릴리]인데, 범죄가 발생했을 때 신고하는 전화번호 112를 연상하면 헷갈리지 않고 실전에서 맞춤법을 제대로 쓸 수 있다.

하나하나 빠짐없이 라는 뜻으로도 쓰이는데, '일(日)'이라는 한자는 하나하나 또는 하루하루 의미로 쓰이는데 이를 통해 모든 것을 세세하거나 확인할 때 사용한다. 그러므로, **일일히는 일일이의 옛 말로 현재 사전에 없는 표현이여서 사용하지 않는 것이 옳다.** 잘못된 형태인 일일히를 사용하는 이유는 발음상 유사하게 들리기 때문이다. 하지만, '하나하나'의 의미를 담기 위해서는 반드시 일일이로 표기해야한다.

또한 <한글 맞춤법 제 6항 제 51항>에서는 부사의 끝음절이 분명히 '이'로만 나는 것은 '이'로 적는다.는 규정에 따라 '일일이'라고 적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한단어를 반복해서 결합하는 것을 '첩어'라고 하는데 '일일'이라는 척어 뒤에는 '이'가 들어가는게 맞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러므로, '직장상사가 내가 맡는 업무를 일일이 vs 일일히 간섭해서 스트레스 받는다.'라는 문장에서는 일일이로 어휘를 바꿔서 쓰는게 알맞다.

한 줄 요약

일일이: 하나씩 하나씩



선택 퀴즈

지시한 내용을 [일일이](#)/[일일히](#) 확인해야 합니다.

정답: 일일이

뒤치닥꺼리 / 뒤치다꺼리



'뒤치다꺼리, 뒤치닥거리, 뒷치닥꺼리, 뒤치닥꺼리, 뒤치다꺼리'등 사람들이 쓰는 어휘표현은 다양하다. 그 중에서도 올바른 어휘위 표현은 '**뒤치다꺼리**'다. 뒤치닥꺼리는 '뒤에서 일을 보살펴서 도와주는 일'을 뜻한다. 예를 들면 '자식이 많으니 학비 뒤치다꺼리도 힘들다, 애들 뒤치다꺼리에 쉴 틈이 없다'와 같이 쓴다.

주로, 타인의 미완성된 일이나 귀찮은 일을 해결해주는 것을 표현할 때 사용한다. 이 단어의 원형은 '뒤치다꺼리'로 '뒤치다'와 '꺼리'가 결합된 말이다. 여기서 '뒤치다'는 '남이 남긴 일을 마무리하다'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으며 '꺼리'는 일을 가리키는 표현으로 보조역할을 한다. '뒤치닥꺼리'라는 잘못된 표기는 발음상의 유사함 때문에 발생한다. 그러나, '뒤치닥'이라는 말은 존재하지 않고 표준어로 인정된 형태는 뒤치다꺼리다. 뒤치닥꺼리는 비표준어로, 뒤치다꺼리가 표준어로 인정된다.

다른 뜻으로는 '일이 끝난 뒤에 그 남은 일을 정리함'을 뜻한다. '회의가 끝나고 일부 직원은 뒤치다꺼리를 하고 퇴근해야 한다'와 같이 쓰인다. 뒤치다꺼리는 '치다꺼리'에서 온 말이다. '치다꺼리'란 '일을 치러내는 일' '남의 자잘한 일을 보살펴서 도와주고 또는 그런 일'을 뜻한다. '잔치 치다꺼리' '제사 치다꺼리' '자식 치다꺼리'와 같이 쓰인다.

'뒷골' '뒷머리'와 같이 '뒤'에 사이시옷을 붙이는 '뒷치다꺼리'로 쓰지 않고 '뒤치다꺼리'로 쓰는 것은 '뒤' 다음에 오는 '치다꺼리'가 거센소리 'ㅊ'으로 시작하기 때문이다. 또한 '뒤치다꺼리' 대신 약어로 '치다꺼리'를 쓰기도 합니다. 뒤치다꺼리와 비슷한 말로는 '뒷바라지' '뒷수습'이 있다. 참고로 북한은 한국과 다르게 '뒤치닥거리'를 표준어로 삼고 있다.

그러므로, ○○신입사원이 마무리 못한 일을 대리인 제가 뒤치다꺼리/뒤치닥꺼리 하는건 아니지 않습니까? 라는 예시문의 맞춤법은 신입사원의 미완성된 일이나 귀찮은 일을 해결할 때 사용하는 의미이므로 뒤치다꺼리로 사용된다.

한 줄 요약

뒤치다꺼리: 뒤에서 일을 보살펴 주는 일



선택 퀴즈

네가 나이가 몇인데
내가 언제까지 **뒤치닥꺼리/뒤치다꺼리**해야 돼?

정답: 뒤치다꺼리

날씨 및 경제



열대야



여름에 18시부터 다음 날 9시까지 최저기온이 25°C 이상인 밤을 지칭하는 용어이다. 열대야 일수는 밤최저기온이 25°C 이상인 날로 정의한다. **열대야**(트로피컬 나이트)라는 말은 트로피컬 데이에서 나왔다. 낮 최고기온이 30°C 이상인 한여름의 날씨를 '트로피컬 데이'라 부른다. 기온이 밤에도 25°C 이하로 내려가지 않을 때에는 너무 더워서 사람이 잠들기 어렵다.

※ 밤시간: 당일 18:01 ~ 익일 09:00시까지를 기준으로 한다.

한 줄 요약

열대야: 한 여름의 밤

알면 문해력에 쓸데있는 토막 배경 지식

최근에는 초열대야(超熱帶夜, Super Tropical Night) 현상까지 우리나라에서 발생했다. 초열대야 현상은 밤 최저 기온이 30도 이상인 것을 말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1951년 8월 20일 광주에서 29.8도를 기록한 이래 단 한 번도 30도를 넘은 적이 없었다. 그러나가 2013년 8월 7일 처음으로 발생했다. 강원도 강릉시의 밤 최저기온이 30.9도를 기록한 것이다. 이 기온으로 우리나라에서도 초열대야 현상이 발생한 것으로 기록되었다. 참고로 초열대야는 지금까지 아열대나 열대기후구에서만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왔다.



초성 퀴즈

다음을 뜻하는 단어는?

최저 기온이 25도 이상인 무더운 밤.

○ □ ○

정답: 열대야

지구온난화



지표 부근(지구)의 기온이 장기적으로 상승하는 기상현상.

온난화 현상의 이유는 이산화탄소가 너무 많아 오존층의 사이사이를 벌려서 오존층에 구멍이 나서 발생한다. 이 구멍으로 햇빛이 오존층으로 걸러지지 않고 바로 들어와서 햇빛의 세기가 오존층에 걸려져 오는 것과 걸러지지 않고 온 것의 차이는 매우 크다. 이 햇빛은 우리의 피부를 상하게 하고, 비가 내리지 않고, 식물들은 말라서 다 죽고 풀을 먹는 동물들이 죽고 육식동물이 죽고 결국 우리 사람도 죽어서 멸망에 이를수 있다.

한 줄 요약

지구온난화: 지구가 열을 많이 받아서 생기는 현상

알면 문해력에 쓸데있는 토막 배경 지식

온난화의 원인은?

-> 아직까지 명확하게 규명되지 않았으나, 온실효과를 일으키는 온실기체가 유력한 원인으로 꼽힌다.

이상기후의 종류와 영향:

-> ① **스모그 현상:** 안개 속에 매연이 포함되어서 먼지 안개가 생겨서 엄청난 피해가 있는데 이 현상은 사람들의 시야를 가릴 뿐만 아니라 호흡기 질환을 일으키는 무서운 현상

② **사막화현상:** 지구가 2080년도에 모든 생물의 70%가 없어지리라고 되는 무시무시한 현상

③ **엘니뇨 라니냐 현상 :**

- **엘리뇨 현상 :** 바다의 기온이 평균기온보다 높아져 바다의 생물체가 멸종하는 대재앙

- **라니냐 현상 :** 엘리뇨와 세트로써 서태평양은 고온이 되고, 동태평양은 저온이 되는 바다

지구온난화 해결방안:

-> 에너지와 자원 절약의 실천, 환경친화적 상품으로의 소비양식 전환, 폐기물 재활용의 실천등등



초성 퀴즈

다음을 뜻하는 단어는?

산업화, 온실가스 증가 등의 원인으로
지구의 기온이 높아지는 현상

지구온난화

정답: 지구온난화

자연재해



태풍·홍수·호우·폭풍·해일·폭설·가뭄·지진 등의 피할 수 없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상적인 자연현상 또는 인위적인 사고가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 사회적·경제적 피해이다.

한 줄 요약

자연재해: 피할 수 없는 자연현상이나 인위적인 사고로 인해 생기는 피해

알면 쓸데 있는 문해력 바탕지식

자연재난행동요령

① 태풍

TV, 라디오, 스마트폰 등에서 태풍이 예보된 때에는 거주 지역에 영향을 주는 시기를 미리 파악하여 이웃과 공유하고, 어떻게 대피할지 생각하고 가족이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조치를 취하도록 한다

② 지진

집 안에서의 안전을 확보, 집 안에서 떨어지기 쉬운 물건을 고정, 집을 안전하게 관리, 평상시 가족회의를 통하여 위급한 상황에 대비, 평소 비상용품을 잘 준비한다

③ 폭염

여름철에는 항상 기상상황에 주목하며 주변 사람들과 함께 정보를 공유, 열사병 등 온열질환의 증상과 가까운 병원 연락처 등을 가족이나 이웃과 함께 사전에 파악하고 어떻게 조치해야 하는지를 알아두기, 폭염예보에 맞추어 무더위에 필요한 용품이나 준비사항을 가족이나 이웃과 함께 확인하고 정보를 공유 등등

국가에서 운영하는 재해예방사업

태풍과 집중호우 등 자연현상으로 인한 재해를 예방하고 경감하기 위해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소하천정비법」,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운영·관리하고 있으며,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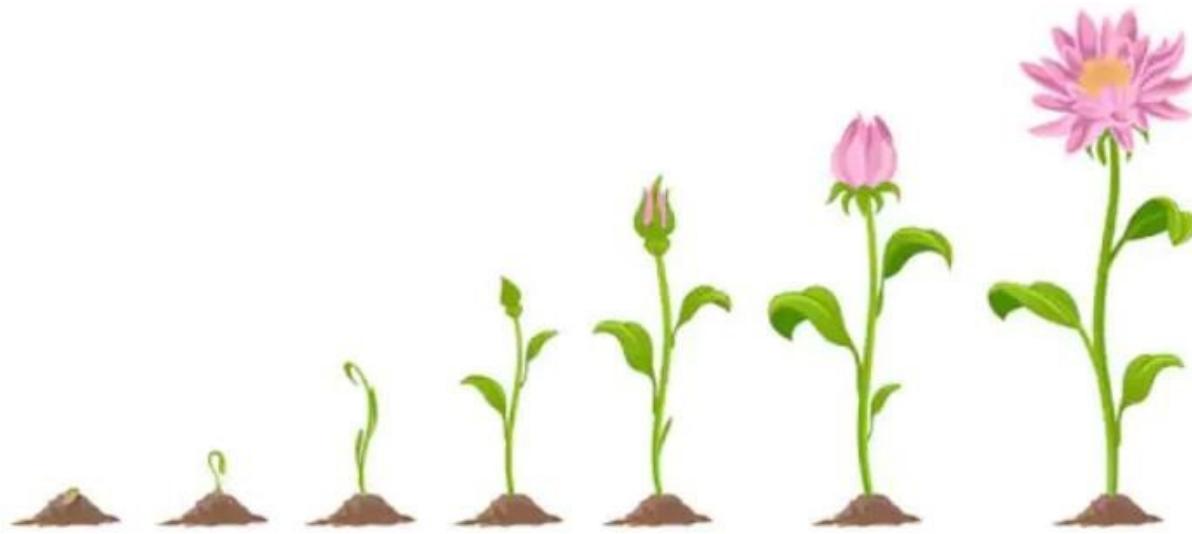
객관식 퀴즈

다음 중 자연재해와 관련이 없는 것은?

- ① 태풍
- ② 전염병
- ③ 가뭄
- ④ 홍수

정답: ②

개화



풀이나 나무의 꽃이 피는 것이다.
꽃이 피기까지에는 그때까지 잎눈을 만들어 오던 생장점이 꽃눈
을 만들 만한 상태로 전환되는 과정이다.

개화의 3가지 범주

①한해살이 식물

생활사를 1년에 마치는 식물로서 옥수수, 밀, 벼 및 대두와 같이
우리의 음식에 중요한 많은 작물이 포함된다. 개화 후에 이들 식물
은 대부분의 에너지와 물질을 종자와 열매의 발달에 사용하고, 나
머지는 말라 죽는다.

②두해살이 식물

생활사를 2년에 마치는 식물로서 양배추, 양파, 야생 당근 등이
여기에 속한다. 첫해에는 영양생장을 하며, 당근과 같은 지하 뿌리
나 양파와 같은 줄기에 탄수화물을 저장한다. 이듬해에 꽃과 종자
를 형성하기 위하여 저장된 탄수화물의 대부분을 사용하며, 종자
가 형성된 후에 식물은 죽는다.

③여러해살이 식물

3년 이상 혹은 훨씬 더 오래 사는 식물이다. 단풍나무는 400년
이상을 살며, 여기에는 나무와 관목뿐만 아니라 야생화를 포함한
다. 이들은 매년 꽃이 피지만 살아 남아 다음해에도 계속 생장한다.

한 줄 요약

개화: 꽃이 피는 과정

사계절



일정한 지역 기준으로 1년 중 기후가 비슷한 시기끼리 몇 개월 단위로 나눠 놓은 것을 말한다. 우리나라는 지리적으로 중위도 온대성 기후대에 위치하여 봄, 여름, 가을, 겨울의 사계절이 뚜렷하게 나타난다.

봄과 가을은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으로 맑고 건조하고, 여름은 고온 다습한 북태평양 고기압의 영향으로 무더운 날씨를 보이며, 겨울에는 한랭 건조한 대륙성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춥고 건조하다.

한 줄 요약

사계절: 봄, 여름, 가을, 겨울

알면 쓸데 있는 문해력 지식

왜 이런 사계절이 일어나는 걸까?

우리나라의 기후를 결정짓는 가장 큰 원인은 여름과 겨울에 한반도에 불어 닥치는 계절풍 때문이다. 겨울에는 차갑고 건조한 북서 계절풍이 불어서 춥고, 여름에는 무덥고 습기가 많은 남서 계절풍이 불어서 더운 것이다.



빈칸 퀴즈

- 추수, 낙엽, 천고마비 ()
- 계절의 시작, 꽃, 꽃샘추위 ()
- 폭염, 열대야, 장마 ()
- 눈, 추위, 폭설 ()

정답: 가을, 봄, 여름, 겨울

을씨년스럽다

찬바람이 부니까 마음까지 을씨년스럽네

23:22



엄마

우리 딸 벌써 사춘기인가?

23:22

사춘기는 무슨.. 난 가을을
타는 것뿐이라고요

23:23



엄마

그래? 우리 딸 이러다가 떨어지는
낙엽보고 우는게 아닌지 모르겠네 ~

23:23

엄마도 참~

23:23

+



#

날씨나 분위기가 쓸쓸하고 스산할 때 쓰는 '을씨년스럽다'이다.

* 유래: 1905년 이후부터 쓰기 시작했다. 을씨년스럽다는 '을사년스럽다'가 변한 말인데, 여기서 '을사년'은 일본이 강압적으로 조선과 한일협상조약을 맺은 1905년을 말하며 을사년에 체결됐다고 해서 이 조약을 보통 '을사조약'이라고 한다.

한 줄 요약

을씨년스럽다: 쓸쓸하고 스산한
상황에 쓰는 말

보증

아저씨, 제가 저번에 벽에 시계 건다고
못을 박았는데

이것도 보증금에서 차감되나요?

23:28



집주인

저기 청년, 못을 박는다고 말을 안
하고 그러면

보증금에서 차감할 수 밖에 없어요

23:29

네...아저씨 그럼 보증금에서 차감시키고
돌려주세요ㅠㅠ

23:29



어떤 사람 또는 사물 등에 대한 사항을 책임지고 증명하는 행위이다. 물품의 품질에 대한 담보·보증(Warranty)의 뜻도 있다.

보증의 종류

구체적 법률관계의 내용에 따라 단순보증, 연대보증, 공동보증, 근보증, 신원보증으로 구분한다.

한 줄 요약

보증: 책임을 증명하는 것

알아두면 쓸데있는 문해력 지식 ① 단순보증

주된 채무자 이외에 동일한 내용의 채무를 부담하는 종된 채무자를 두어, 주채무자의 채무(주채무)에 대한 채권을 담보하는 제도를 말한다.

② 연대보증

보증인이 주채무자와 연대해 채무를 부담함으로써 주채무의 이행을 담보하는 채무를 말한다.

③ 공동보증

같은 주채무에 대해 여러 사람의 보증인이 각자의 행위로 보증채무를 부담하는 것이다.

④ 근보증

일정한 계속적 거래관계로부터 발생하는 불특정의 채무를 보증하기로 하는 계약을 말하며, 신용보증이라고도 한다.

⑤ 신원보증

피용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그의 책임 있는 사유로 사용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

우에 그 손해를 배상할 채무를 부담하는 것을
말한다



초성 퀴즈

다음을 뜻하는 단어는?

빚을 갚아야 할 사람이 그 의무를 행하지 아니
할 경우에, 다른 사람에게 그 사람을 대신하여
빚을 갚을 것을 부담하는 일.

보증

정답: 보증

이자



남에게 돈을 빌려 쓴 대가로 치르는 일정한 비율의 돈이며 또는 기타의 대체물을 사용한 대가로서 원금액과 사용기간에 비례하여 지급되는 금전이나 기타 대체물이다.

한 줄 요약

이자: 원가에서 사용기간에 비례하여 추가로 지급하는 금전

알아두면 쓸모있는 문해력 지식

이자는 정부의 통제여하에 따라 두 가지로 구분된다

① 자금의 수요·공급에 의해 결정되는 시장이자

자금의 초과수요가 항상 존재하는 국가에서 적정금리를 유지하고자 인위적으로 통제된 통제이자

금융시장에서는 예금금리·대출금리·콜금리·증권이자율 등 여러 가지 이자가 형성되어 있는데, 이들 상이한 금리들은 서로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으며, 하나의 유기적 체계를 맺고 있는데, 이를 이자율 구조라 부른다.



초성 퀴즈

다음을 뜻하는 단어는?

남에게 돈을 빌려 쓴 대가로 치르는
일정한 비율의 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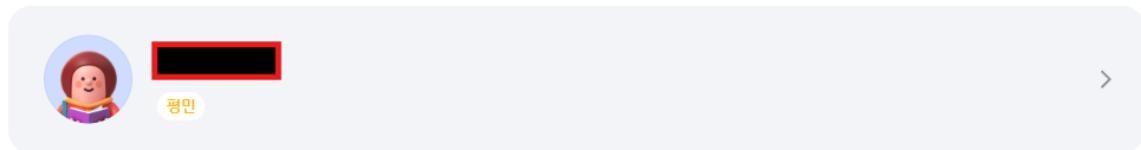
● ✎

정답: 이자

기타



않 / 안



본인 입력 포함 정보 i

'안'은 부정 또는 반대의 뜻을 나타내는 부사 '아니-'의 준말입니다. '않'은 동사나 형용사 아래에 붙어 부정의 뜻을 더하는 보조용언 '아니하다'의 준말입니다. 요약하자면 뜻은 같지만 '안'은 '아니-'의 준말, '않'은 '아니하다'의 준말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어떤 말이 어울리는지 헷갈린다면 '아니-'나 '아니하다'라는 말을 그 자리에 넣어보면 됩니다. 보통 용언 앞에는 이를 수식하는 부사가 오기 때문에 '안'이 맞고, 어미 앞에는 어간인 '않'이 어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방금

'태아 성별 알아 맞추기/맞히기'라는 문장이 예시 주어져서 옳은 답을 찾으라고 하면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가? 골라내다의 의미로 쓰이는 단어로는 '알아**맞히다**'의 뜻을 가진 '**맞히다**'를 써야 한다.

'**맞히다**'와 '**맞추다**'는 쓰임새가 서로 다르다. '**맞히다**'는 "수수께끼를 맞혀 봐" "퀴즈의 답을 맞힌 사람이 누구일까?"와 같은 상황에서 사용한다. 또한, '**맞히다**'는 문제에 대한 답을 틀리지 않고 적중시킨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그러므로, 퀴즈를 **맞추다/맞히다** 할 때 '**맞히다**'가 적절한 표현이다.

그리고 시험을 어떻게 쳤는지 궁금해 서로 답을 비교해 보거나 문제지를 푼 다음 해답과 대조해 보는 것은 '**맞추다**'로 표현하는 게 맞다. "시험이 끝나고 친구들끼리 답을 맞춰 봤다" "문제를 푼 뒤 답안지와 맞춰 봐라" 등과 같이 쓰인다. 둘 이상의 일정한 대상을 나란히 놓고 비교해 살핀다는 뜻이다.

또 다른 의미로는 '**맞추다**'는 서로 떨어져 있는 부분을 제자리에 맞게 대어 붙이다, 정해 놓은 기준이나 규정에 맞도록 하다는 의미로도 쓰인다. '조각난 부분들을 하나하나 다시 맞춰 붙이고 있다.' '심사 기준에 잘 맞춰라'와 같은 상황에서 주로 사용한다. 또한, '**맞추다**'는 물체나 상황을 비교해 조화를 이루게 하거나 일치하도록 조정한다는 뜻으로, '퍼즐을 **맞추다**'처럼 쓰인다. 그러므로, '**맞추다**'와 '**맞히다**'는 상황에 따라 쓰이는 어휘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대상끼리 서로 견줘 보는 것은 '**맞추다**', 바른 답을 가려내는 것은 '(알아)**맞히다**'를 써야 한다. '알아**맞추다**'란 말은 사전에 없다. '알아**맞히다**'로 바꾸어야 한다. 반면 "**맞히다**"는 목표물에 정확히 도달하거나 정답을 알아내는 상황에 쓴다. 그러면 퀴즈를 맞추면/맞히면 경품을 드립니다. 라는 문장에서는 어떤 어휘가 더 적절하게 쓰일까? 국립국어원에 따르면 "퀴즈"의 경우에는 정답을 선택하여 맞히는 행위이므로 "퀴즈를 **맞히다**"라고 해야 한다.

한 줄 요약

안=아니-

않=아니하다



OX 퀴즈

- 보통은 그렇게 않해. ()
- 넌 시험공부는 않고 계속 게임만 하는구나! ()
- 난 놀기만 하지 않았어. ()

정답: X(-> 안 해), O, X(-> 않았어)

되 / 돼



앞서 본 '안'과 '않'처럼 헷갈리기 쉬운 표현인 '되' 와 '돼'를 알아보자 먼저 '**되**' 와 '**돼**'에 대해 알아보면 '되'는 '되다'라는 용언(동사)의 어간으로 홀로 쓰이지 못하고 '되-'뒤에 어미가 붙어서 '되어', '되면' 등과 같이 쓰인다.

그리고 '돼'라는 형태는 어간 '되'에 '어'가 붙은 '되어'의 줄임말이다. 즉 '돼'는 '되'라는 어간이 활용된 '되어'의 줄임말이자 '되'라는 단어 아래에 있는 활용형이라는 것이다.

결국 의미가 다른 것이 아닌 이 둘 역시 발음과 형태가 비슷하기에 사람들이 자주 헷갈려 하는 맞춤법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되'와 '돼'를 구분하는 방법은 먼저 앞서 말했듯이 '**돼**'는 '**되어의 줄임말기 때문에 '되어'를 넣어 말이 되면 '돼', '되어'를 넣어 말이 되지 않으면 '되'**를 사용한다.

예를 들어 사서가 되고 싶다. vs 사서가 돼고 싶다. 라는 문장이 있을 때 각 자리에 '되어'를 넣어보면 '사서가 되어고 싶다.'라는 문장이 되는데 이게 어색하므로 '사서가 되고 싶다.'라는 문장이 옳은 문장이다.

다른 방법으로는 '하' '해'를 넣어 보는 것이다.

'하'를 넣어 말이 되면 '되', '해'를 넣어 말이 안 되면 '돼'를 사용한다.

예를 들어 그건 하면 안 돼요. vs 그건 하면 안 되요 에서 '해'와 '하'를 넣었을 때 '안 해요' 와 '안 하요' 중에 후자가 더 어색함으로 '그건 하면 안 돼요. 라는 문장이 올바른 표현인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추가로 알아두어야 할 주의사항에 종결어미에는 '되'를 쓸 수 없다는 것을 알아 두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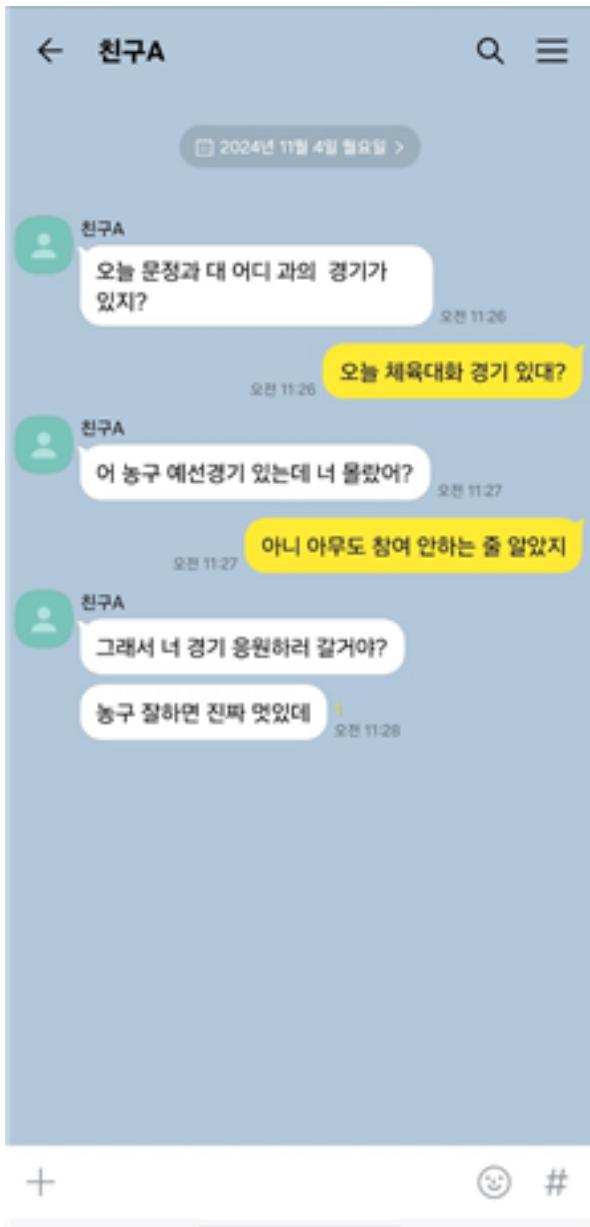


OX 퀴즈

- 이렇게 해도 되요. ()
- 여기에 쓰레기 버리면 안됩니다. ()
- 시간이 되면 다시 연락해줘. ()

정답: X(-> 돼요), X(-> 안됩니다), O

데 / 대



'-데'는 과거 어느 때에 직접 경험해 알게 된 사실을 나중에 보고 하듯이 말할 때 쓰이며 '-더라'와 같은 의미를 전달한다. 또한 어떤 '일', '~것', '경우'를 뜻할 때도 사용하고 주로 장소와 상황을 표현할 때 사용한다. 문장을 예를 들어 "도서관에 가는 데 오래 걸렸어"는 장소를 나타내고 "이 프로젝트를 완성하는데 시간이 많이 필요해" 특정 상황을 설명할 때 사용한다.

반면 '-대'는 '-다고 해'의 줄임말로 남이 말한 내용을 간접적으로 전달할 때 비교하거나 대응할 때 쓰인다. 또는 어떤 사실에 대한 의문이나 못마땅함을 표시할 때도 쓰인다.

다른 경우에는 '대요'와 '데요'를 사용할 때 '**대요**'는 말을 전달 할 때, '**데요**'는 자신의 경험을 말할 때 사용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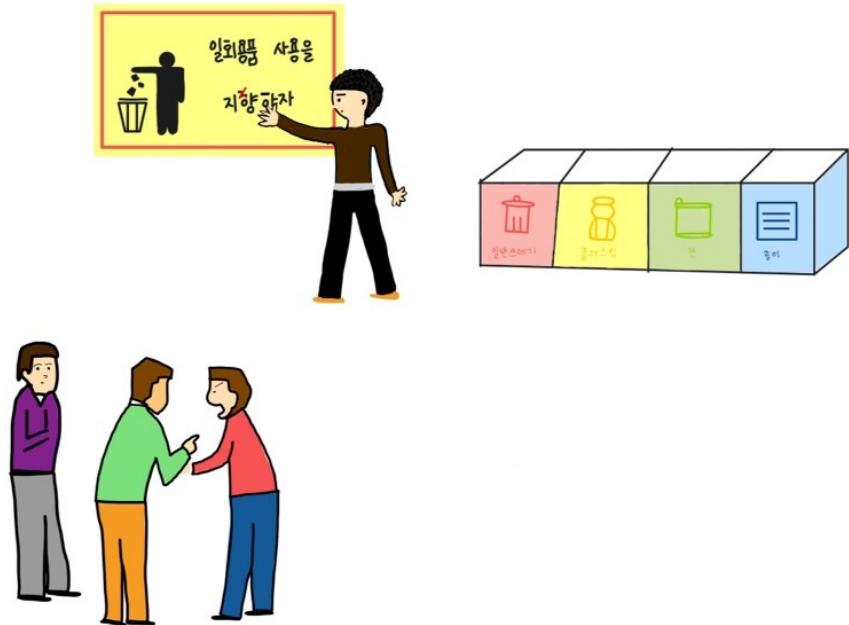


OX 퀴즈

- 여기까지 오는 데 너무 오래 걸리더라. ()
- 우리 오늘 회의 취소됐데. ()
- 요즘 두바이 초콜릿이 유행이던대요. ()

정답: O, X(-> 취소됐대), X(-> 유행이던데요)

지양 / 지향



지양과 지향은 앞서 본 예시와 다르게 의미부터 다른 단어다.

지양은 더 높은 단계로 오르기 위하여 어떠한 것을 하지 않는다 는 의미로 어떤 행동이나 사고방식, 관습 등을 피하거나 멀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개인이나 사회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가치와 행동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과 더불어, 부정적이거나 해로운 것들을 피하는 것을 포함한다.

지향이란 어떤 목표나 이상을 향해 노력하거나 추구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주로 어떤 가치, 원칙, 목표 등을 중심으로 사람들이 그것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을 나타내고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되며, 미래를 향한 발전과 성장을 추구하는 것을 의미한다.



OX 퀴즈

- 환경 보호를 위해 일회용품 사용을 지향합니다. ()
- 건강하려면 금연을 지양해야지. ()
- 난 불필요한 소비를 지양한다. ()

정답: X(-> 지양), X(-> 지향), O

어떻게 / 어떡해



지양과 지향의 사례와 마찬가지로 '어떻게'와 '어떡해' 또한 서로 사용하는 경우가 다르다.

'**어떻게**'는 '어떠하다'의 변형인 '어떻다'에 어미 '-게'가 붙은 형태로 상태, 방법, 의견, 이유 등을 묻는 질문에 사용된다. 부사로서 다양한 용언을 수식하는 경우에 사용된다.

'어떻게'의 원형인 '어떠하다'에 시선을 두고 상황에 따라 어떠한 방법, 어떠한 의견, 어떠한 질문 이런 방식으로 풀어서 생각하는 것 또한 '어떻게'를 사용할 적절한 상황을 파악하는데 도움을 준다.

'**어떡해**'는 '어떻게 하여'의 줄임말로 특정 상황에서 반응이나 감정을 표현할 때 사용된다. 엄밀히 말하면 '어떡해'는 하나의 단어가 아니라 줄임말이므로 품사가 없으며 문장에서 주로 감탄사 역할을 한다.

어떤 상황에 대해 감정을 드러내며 대처 방안을 묻는 느낌을 준다.^[4]



OX 퀴즈

- 이 기사 뭐야? 맞춤법 어떡해? ()
- 어떡해 이별까지 사랑하겠어.
 널 사랑하는 거지. ()
- 네가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어? ()

정답: O, X(-> 어떻게), O

문해력 향상하는 방법

첫 번째, 소리 내어 글 읽기

특히 아동과 같이 나이가 어릴 경우, 소리 내어 글을 읽는 연습이 언어발달에 도움이 된다.

두 번째, 모르는 어휘 알아보기

어려운 단어가 생겼을 때 그냥 넘어가지 말고 찾아보는 것이 중요하다. 직접 찾아서 배우고 이해하는 활동을 통해 더 오래 기억할 수 있고, 특히 한자어를 사용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한자의 뜻을 한번 찾아보는 것도 좋다. 또한, 새로운 단어를 배워 글을 쓰거나 대화에서 사용하는 연습을 해보자.

세 번째, 긴 호흡의 글을 읽으며 글 사이 관계 파악하기

규칙적인 독서를 통해 집중력을 향상시키고 긴 글을 읽는 것에 적응하는 것이 필요하다. 단어 하나하나에 담긴 의미와 문장의 맥락 파악은 논리적 사고를 기를 수 있다. 여기서 포인트는 급하게 읽지 말고 천천히!

네 번째, 스스로에게 질문하기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면서 다양한 관점으로 생각하면서 비판적 사고를 기를 수 있고, 일상생활에 선택이 필요한 상황에서 도움이 될 수 있다. 특히 가짜 뉴스가 판치는 세상에서 정보가 사실인지, 믿을 만한지 판별하는 데도 꼭 필요하다.

다섯 번째, 글쓰기

글을 쓰다 보면 자신의 생각을 정리할 수 있고, 창의력과 표현력이 향상되어 어휘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2]





- [1] 출처 : [온라인 가나다](#)
- [2] 출처 : [교육부](#)
- [3] 출처 : [\[우리말톺아보기\]왠일?웬일!, 이운영, 한국일보](#)
- [4] 출처 : [\[나랏말싸미\] '어떻게'와 '어떡해', 이현경, 전국매일신문](#)
- [5] 출처 : [한중일 세 나라에서 한자와 한자어의 발전과 현황, 한중일 공통 한자어 어휘집](#)

출처

우리말 샘 (접속일 : 2024.11.17.)
<https://opendict.korean.go.kr/>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접속일 : 2024.11.17)
<https://stdict.korean.go.kr>

문해력으로 인한 웃픈상황, 이젠 해결할 수 있습니다.

금세|vs금새

ex)직장 이직한다는 소문이 금세 퍼졌다.

부가설명:'금세'는 금시에의 준말로 바로 지금 또는 '곧'이라는 뜻을 가진 말이다.

중식

중식은 '중국 음식'과 '점심에 끼니로 먹는 밥'이라는 2가지 의미가 있다.

사서가 되고 싶다. vs 사서가 돼고 싶다.라는 문장이 있을 때 각 자리에 '되어'를 넣어 보면 '사서가 되어고 싶다.'라는 문장이 되는데 이게 어색하므로 '사서가 되고 싶다.'라는 문장이 옳은 문장이다.



조성 퀴즈

다음을 뜻하는 단어는?

오랫동안 버티며 견디는 힘.



객관식 퀴즈

다음 중 뜻하는 바가 나머지와 다른 것은?

- ① 시장하실 텐데 이것 좀 드세요.
- ② 시장이 반찬이다.
- ③ 배고픈데 시장 가서 뭐 좀 먹을까?
- ④ 밥을 조금만 먹어서 그런지 시장하다.

정답: ②

자그마



문해력 저하현상 극복기

당신의 생각을 전달할 준비 되셨나요?

교수님없는교수님조